

WTO 연내 가입 확실시

최근 중국과 미국·유럽연합(EU) 간에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관련, 그 동안 계류중인 문제점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의 WTO 연내 가입이 기정 사실화되고 있다.

중국은 6월 상하이(上海)에서 아·태 경제협력체(APEC) 장관급 회담이 개최되는 기간을 활용하여 쌍무협상 이후 다자간 협상시 계류중인 농업 보조금 지급과 보험 개방 등의 문제에 대해 미국·EU와 협상을 진행해 왔다.

중국은 1999년 11월과 2000년 5월 미국, EU와 각각 쌍무협상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제네바에서 마지막으로 속개된 '제15차 중국의 WTO 가입을 위한 실무협의'에서 상기의 문제들로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해 지금까지 실무회의가 지연됨으로써, WTO 가입도 진전이 없었던 것이다. 이번 협의에서 협상 당사국들이 인식을 같이 한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농업 보조금 7% 수준으로

하나는 농업보조금 비율 문제이다. 중국은 그 동안 중국 농민에게 개발도상국 수준의 보조비율인 10%의 농업 보조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반면, 미국은 비록 소득수준으로 볼 때 중국이 개발도상국이지만 경제규모로 볼 때 선진국이기 때문에 5% 수준을 지급해야 된다고 주장하여 양측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 때문에 당초 3월 초 개최 예정이었던 제16차 다자간 협상이 속개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지난 6월 9일 중국 대외 무역 경제협력부 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간의 농업 보조금 등 그 동안 중·미간의 계류중인 문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였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중·미간에 합의한 농업보조금 비율은 7%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당초 중국이 주장한 개발도상국 수준 10%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농업 보조금 비율을 놓고 보면 중국이 더 이상 개발도상국 자격으로 WTO 가입을 고집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농업 보조금에 대한 큰 폭의 양보를 하고 나서 중국은 대내적인 비판 여론을 의식하여 보조금 지급률을 7%로 낮추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중국이 농업에 대한 보조금을 3%가 채 안되는 수준에서 지급해 왔으며, 설사 중국이 당초 목표로 했던 10% 보조금 지급률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예상상의 문제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농업에 대한 보조금은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중국은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비록 7%의 보조금 지급률을 확보했지만, 쌀, 밀과 같은 식량 등에 대해서는 필요시 7%까지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혹시 있을지도 모를 대외적인 식량 자원화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과와 마늘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도 지급률을 크게 양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EU는 식량수입 쿼터를 EU 회원국에 배정해 줄 것을 중국에 요구해 왔으나, 이번에는 EU가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앞으로 상호 노력하기로 인식을 같이 했다.

보험 등 서비스 분야의 확대 개방

다른 하나는 보험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문제이다. 보험은 당초 가입 후 5년이 되면 지역적 제한을 철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가입 후 3년이 되면 합자형식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유통업의 진입제한에 대한 완화로서 하나의 브랜드만을 가진 기업의 진출 제한을 폐지하고, 연쇄점도 전국적으로 30개 직영점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쪽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중국은 WTO 가입 후 3년이 되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대외무역권을 제한하지 않기로 하였다.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기업은 생산과 관련된 원·부자재와 생산제품에 대해서만 대외무역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WTO 가입 후 5년이 되면 중국이 그 동안 행사해 오던 수입상품에 대한 허가제를 완전히 취소하기로 하였다. 중국은 과거 2,000여 개의 상품에 대해 수입 허가제를 실시하였으며, 쌍무협상에서는 150여 개 수준까지 축소하는 것이었다. 한편, 중국이 가장 신중하게 처리해 온 분야가 증권시장에 대한 개방이었다. 이는 증권시장 개방이 곧바로 중국 자본시장에 대한 개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자본거래에 대한 자유태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증권시장에 대한 개방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렇게 보면 위안화의 자유태환 시점이 증권시장에 대한 개방을 의미한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다.

경제적 발언권 강화를 위해 개도국 지위 포기

그렇다면 왜 중국이 그 동안 줄기차게 견지해오던 개발도상국 자격의 WTO 가입 원칙을 포기하고 다자간 협상에서 선진국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

용하였는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 국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쪽은 다자간 협상에서의 양보가 너무 컸다는 것이다. 중국이 다자간 협상에서 양보한 배경은 다음 몇 가지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뉴 라운드에서의 발언권 강화 도모이다. 당초 1999년 WTO의 시애틀 회의에서 뉴 라운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뉴 라운드에 대한 반대 시위로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금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되는 회의에서 제조업 관련 새로운 무역 자유화 의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금번 논의에서 최대 개발도상국인 중국이 WTO 회원국의 자격을 획득하지 못하는 이유로 뉴 라운드 회의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 WTO 가입을 위해 양보해야 했던 것보다 더욱 많은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내부적으로 팽배했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더욱이 뉴 라운드에서 중국이 경제대국으로서의 자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야만이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의 힘의 논리에 맞설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경제적 헤게모니 싸움에서 더 이상 선진국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발로가 이번 다자간 협상에서 많은 양보를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대내외적인 이미지 제고라는 정치적 측면의 고려이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이 이번에 APEC 장관급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10월에는 APEC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는데, 그 때까지 여전히 WTO 가입이 불투명할 경우 대외적으로 중국의 이미지가 실추된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1986년부터 WTO의 전신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가입부터 시작하여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점이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내년에는 '제16기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개최되어 공산당 지도부의 교체가 있을 수도 있다. 전국대표대회의 개최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점에서 WTO 가입은 중국의 국제경제 규범 준수와 경제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에 대한 보장이라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

셋째, 개혁개방의 가속화이다. 중국이 1993년부터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기 시작하였고 1997년부터 국유기업 개혁 등의 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내적인 역량의 부족으로 진전이 순탄치 않다. 따라서 WTO에 조기 가입함으로써 대외개방에 대한 외부적인 압력을 통해 국내 개혁을 심화시키고자 한 점도 고려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중국의 쌍무협상 일정

국가	협상 일시	비고
1997. 7.	한국, 뉴질랜드, 호주, 일본	합의
1997. 10.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파키스탄, 터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합의
1999. 11.	칠레, 미국, 캐나다	합의
1999. 12.	베네수엘라	합의
2000. 1.	스리랑카, 브라질, 쿠바, 페루, 우루과이, 노르웨이	합의
2000. 2.	필리핀, 인도	합의
2000. 3.	콜롬비아, 태국, 아르헨티나, 키르기즈스탄, 폴란드	합의
2000. 4.	말레이시아	합의
2000. 5.	라트비아, EU	합의
2000. 9.	스위스	합의
현 재	멕시코	미합의

지금까지 WTO 141개 회원국 중에서 쌍무협상을 원했던 37개 국가 중 유일하게 멕시코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멕시코는 중국에 대해 초기에 135개 품목에 대한 시장개방을 요구했으나, 멕시코의 폭스 신임 대통령이 취임한 후 강경 방침으로 선회하여 2,000개 품목에 대해 개방을 요구하는 대신 자국의 신발과 방직 산업의 보호를 위해 이들 중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이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는 주된 요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알려진 바에 의하면, 비록 멕시코가 중국과의 쌍무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못했지만, 멕시코는 중국이 WTO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번 6월 말과 7월 초에 개최되는 '제16차 중국의 WTO 가입을 위한 실무회의'에서 법률적인 문안에 대한 작업이 원만히 진행된다면, 금년 11월 WTO 뉴 라운드가 논의되는 시점에 가입이 기정사실화된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우리 기업 중국 서부지역 내수시장 진출 적극 검토해야

중국이 금년에 WTO 가입하게 되면 중국의 경제환경도 개별 협상을 통해 합의했던 사항들을 준수하는 등 대외개방이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도 과거처럼 너무 신중하기보다는 다소 적극적인 자세로 중국 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는 중국의 외국인 투자법 개정으로 내수 시장에 대한 진입제한이 없어지고 개별 국가들과 합의한 사항에 대해 이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데다, 최근에 서부지역 지방

정부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부지역 외국인투자 비교우위 산업 목록'에서 정한 사업을 중심으로 시장선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제조업 부문의 중국 내수시장에서의 사업 성공 여부는, 동부·서부 등의 특정지역, 독자 또는 합자의 투자형태, 인센티브의 많고 적음 등의 제도상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투자자가 기본에 충실한 충분한 사업성 검토를 실시하고 투자진출 지역의 현지실사를 통한 관련 조세 및 생산요소 비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작업과 함께 합작 파트너 선정 등 기업 본연의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와, 생산 및 품질 관리를 통한 기업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달려있다고 판단된다.

【金 周 永】